

예리한 관찰력을 디자인으로 표현한다

Sam Hecht

영국의 산업 디자이너 샘 헤트는 관찰을 통해 사물의 편리한 요소를 정확히 잡아낸 다음 새로운 디자인 속에 스마트하게 녹여낸다. 멀티 기능의 소가구와 시스템 가구, 액세서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디자인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샘 헤트를 소개한다.

에디터 윤수정 자료제공 인더스트리얼 퍼실리티(www.industrialfacility.co.uk, www.retailfacility.co.uk)



© Gerhardt Kellerman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콜라베이션'은 디자이너와 브랜드 간의 협업을 말한다. 이는 패션이나 산업 디자인 영역에서 활발히 전개되는 형태로 디자이너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브랜드의 역사,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것. 여기에 공공 시설,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에서 찾아낸 디자인적인 아이디어와 동료 디자이너와의 업무 진행 과정까지 콜라베이션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디자인이 나가 있는데, 그가 바로 영국의 산업 디자이너 샘 헤트(Sam Hecht)다.

호기심 천국에 사는 디자이너

자신을 탐구심과 호기심, 장난기 많은 사람이라 정의하는 샘 헤트는 1969년 런던에서 태어나 센트럴 세인트 마틴을 졸업했다. 산업 디자인과 건축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졸업 후 유명한 건축 사무소인 데이비드 치퍼필드에서 견습 생활을 통해 디자이너로서 자질을 쌓아가기 시작했다. '세상을 정확하게 보기 위한 심도 있는 연구와 간결함에 대한 믿음을 통해 다양한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 1993년 로열 컬리지 오브 아트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그는 캘리포니아, 도쿄, 런던 IDEO를 거쳐 2002년 파트너 킴 콜린과 함께 지금의 인더스트리얼 퍼실리티를 창립했다. 이때를 기점으로 가구 및 기타 제품 생산 업체와 협업하면서 그는 디자인을 주관하는 아티스트에서 생산 과정까지 관여하는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역할을 확장했고 마침내 2008년에는 영국 디자이너로서 최고의 영예인 산업 디자인 부문의 왕립 디자이너로 임명되었다.



“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픈 마인드로 제작 전반에 걸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면
좋은 결과가 나오죠.
-샘 헤트

© Gerhardt Kellerman

5

일상 속에서 디자인의 핵심을 찾아낸다

샘 헤트는 많은 작품이 유럽 유수의 박물관, 갤러리에 영구 전시되고 있는 주목받는 디자이너지만 그의 창작 과정이나 라이프스타일은 화려하기보다는 기발하다. 일반 사람들은 무심결에 지나치는 사물의 특징이나 장점을 정확히 짚어내 전혀 다른 제품의 디자인에 접목하는 것.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나를 늘 놀라게 하는 모든 현상으로부터 영감을 얻는다"고 했을 만큼 그의 디자인의 원천은 무궁무진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혼자 생각하고 조용히 연구하는 폐쇄적인 성향의 디자이너들과 달리 사람들과 왈칵 지껄어 올리는 것을 즐기는 터라 디자인부터 소재, 제작, 심지어 비용까지 함께 고민했던 마티아치, 허먼밀러와의 작업을 베스트 프로젝트로 꼽기도 했다. 기발함의 정점은 그의 소중함 컬렉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리 어렵 터이거나 디자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짐작하게 하는 값비싼 것이 아닌 소소한 오브제들을 '5파운드 이하의 컬렉션(Under a Fiver Collection)'이라는 이름 아래 수집하고 있는 것. 그는 지난 20년간 미국, 일본, 요르단, 태국 등지에서 모은 그 지역의 생활용품 플러그, 칫솔, 비누, 장갑 등을 통해 '창의력은 예상치 못한 공간에서 발견되고 첫눈에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의 컬렉션이 담긴 책 <작은 것들 속의 유용함(Usefulness in Small Things)>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공산품에 대한 색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1 높낮이가 조절되는 테이블과 의자, 파티션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로케일™ 오피스. 2 광범위한 디자인 스펙트럼의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는 인더스트리얼 퍼실리티 사무실. 3 넓은 테이블에 편안하게 앉아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샘 헤트가 작업하는 방법이다. 4 필립 스타크 등 디자이너와의 연합 브랜드인 TOG를 위해 디자인한 터보 테이블&체어. 5 이탈리아 마티아치사와 함께 만든 라디체 스톨. T자 모양 등받이는 코트나 핸드백을 걸기에도 좋다.



1

Delightful insights made useful design

샘 헤치는 현재 무지(Muji)의 디자이너이며 허먼밀러의 디자인 자문이기도 하다. 독일, 스위스, 영국의 아트 스쿨에서 강의를 맡기도 했는데, 다양한 해외 경험과 인간관계를 통해 독특한 디자인을 선보여왔다. 오랜 관찰을 통해 일반인의 눈에는 그저 포인트로 투톤 컬러를 썼겠거니 여겼을 일본의 지하철 의자가 양쪽으로 공간을 분할하는 스마트한 장치임을 깨닫고 이를 응용해 만든 제품이 브랑카 테이블, 스톨, 체어다. 보틀 워치 역시 관찰의 산물이다. 맥주병 바닥에는 테이블 표면의 흡착을 막기 위해 테두리를 따라 요철을 넣는데 대부분의 요철 개수가 60개에 착안해 손목시계를 디자인한 것. 주변의 사물에서 핵심을 끌어내는, 그의 통찰력이 담긴 작품을 소개한다.



© Gerhardt Kellerman

브랑카 테이블&체어 (Branca Table&Chair for Mattiazzi, 2010)
2011년 런던 뮤지엄의 올해의 가구 디자인 부분 수상 작품. 부드러운 곡선의 팔걸이와 등받이가 편안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으로 가벼운 나무나 겹쳐 쌓을 수 있어 보관과 이동도 편리하다. 런던의 디자인 뮤지엄과 빅토리아&알버트 뮤지엄의 영구 소장 컬렉션이기도 하다.



3월에 열릴 생 에티엔 디자인 비엔날레를 위해 준비 중인 전시장 시물레이션.



투타이머(Two Timer for Established&Sons, 2008)
두 개의 시계가 하나의 다이얼을 공유하고 있는 듀얼 디자인의 벽시계. 다른 시간대를 체크하며 살아야 하는 현대인의 생활에 맞춘 디자인으로 견고한 알루미늄 프레임과 실크스크린 가공을 한 유리로 제작했다.



로케일™ 오피스 (Locale™ Office for Herman Miller, 2013)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해 주는 진일보한 사무용 시스템 가구. 테이블과 의자의 높낮이를 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테이블, 스크린, 이젤 등 모든 구성 요소들도 필요에 따라 이동, 배치할 수 있다.

Interview with Sam Hecht

작업할 때 특별한 습관이 있다면? 음악을 듣거나 하지는 않고 사무실의 동료들과 협업하는 것을 좋아한다. 사무실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프로젝트에 대해 물어보고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소파, 시계, 의류 기기, 컴퓨터, TV 등의 다양한 디자인 스펙트럼도 이 덕분이다.

어떤 디자이너와 의견을 나누는가? 콘스탄틴 그리치치, 안드레 클라우저, 니트잔 코헨 그리고 파트너인 킴 쿨린은 나의 좋은 디자이너 친구이며 나는 그들과의 대화를 매우 즐긴다.

당신에게 영향을 끼친 디자이너는 누구인가? 디자인이라는 작업이 조금 덜 인정받고 작업 환경도 아닐로 그적이었던 시기에 일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카스티글리오니, 베네토, 마지스트레티, 벤 오트, 마리 앤 벨리니의 작품은 장인의 손길이 더해진 아티스틱한 것으로 현재의 발달된 제작 기술을 뛰어넘는다고 생각하니까.

디자인 외에 가지고 싶은 재능이 있다면? 목소리를 바꾸는 것. 심각하게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매번 실패했다.

가장 만족스러웠던 프로젝트는 무엇인가?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오픈 마인드로 의견 교환을 거듭 하다 보면 프로젝트 완성까지 연관되는 제작, 문화, 소재, 비용, 유용성 등 다양한 부분의 힘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결과물을 도출하게 된다. 마티아치, 허먼밀러와의 작업은 이런 과정과 결과가 모두 만족스러웠다.

앞으로 계획된 프로젝트는 어떤 것인가? 필립 스타크, 세바스티안 베르그네 등의 디자이너와 함께하는 이탈리아 프로젝트 브랜드 TOG와 미국 허먼밀러의 신제품을 디자인하고 있다. 또한 내년 3월에 열릴 생 에티엔 디자인 비엔날레에 출품할 작품, 'Beauty as Unfinished Business'도 준비 중이다.

